

현장취재

4.15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전국의 각계각층 참가자들 합류 지속적인 투쟁을 선포

- '한미 FTA 저지'라는 대의 하에 농축산, 문화예술, 보건의료, 노동, 교육 등 각계각층이 대학로에 모여
- 범국민대회로 시작,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범국민 시가대행진, 민중총궐기 선포대회 순으로 진행

전국 274개 농축산, 사회,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지난 4월 15일 농축산, 문화예술, 보건의료, 노동, 교육 계 등의 관계자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내자는 결의를 다지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부문과 지역을 초월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한미 FTA의 파괴력을 널리 알려 범국민적인 동참을 유도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각 부문별 대회를 시작으로 범국민대회, 범국민 시가대행진, 민중총궐기 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회의 문예성을 적극 살리기 위해 공연이 적절히 마련되었는데 특히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투쟁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마당극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소속 부문대책위원들의 부문연설에서는 정재돈 농축수산특별위 공동대표, 안성기 영화인대책위 공동대표 등 각 부문별 단체대표가



각계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피력하고 향후 지속적인 투쟁전개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후 이승호 협회장을 비롯한 영화배우 최민식 씨, 정진영 씨, 윤영규 민노총수석 부위원장 등은 이날 대회개최의 당위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전국민 동참호소를 골자로 하는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각자의 손에 쥔 촛불로 봉화에 점화하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곧이어 대학로에서 종각까지의 도로를 따라 진행된 범국민 시가대행진에서는 풍물패와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형상화한 대형조형물 및 촛불을 든 대열을 앞세우고 농축산, 영화, 노동, 보건의료, 교육 등 각 부문에서 저마다의 입체적이고 특색 있는 선전물과 행동을 펼쳐며 순조롭게 움직였다.

행진참가자들이 종각에 모두 집결한 후 진행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가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 FTA협상에 대한 규탄과 범국민적인 항쟁을 촉구하는 정치발언을 하고 '한미 FTA 저지'라는 대형글자 모형에 점화하는 상징의식을 거행한 후 대회를 폐회했다.

한편, 이날 범국민대회를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진 것을 감안한 듯, 외교통상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FTA 협상처럼 결렬될 수 있다"라 밝혔다. 이는 한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보하는 듯한 발언이다. 그러나 김현중 본부장은 "반드시 내년 3월 내로 협상을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점유율이 1% 증가시 수출은 5.9% 증가하고 GDP(국내총생산)은 1.4% 증가한다"라며 경제적 효과를 재차 강조해 행정권의 임기후반기 핵심추진과제라 하는 한미 FTA만큼은 기어이 타결시키겠다는 기본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이웅일〉





한·미 FTA 저지를 향한 이심전심(以心傳心)

